

#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들! 여길 보세요



김진중렬 / 딸사랑아버지모임 총무

**작**년 6월 초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일환으로 '딸사랑아버지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네 살 난 딸아이를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이 아이가 자라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발족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참석한 회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딸사랑 아버지 선언에 들어갈 내용을 확정하는 문제였다. 초안이 있었음에도 토론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좀 길지만 모임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고민이 가득 담긴 내용이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 가정생활에 애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육아와 가사 등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평등하고 열린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한다.
- 딸·아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배워가도록 평등하게 키운다.
- 내 자녀만을 사랑하는 편협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회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과 사회제도 개선운동을 함께 해 나간다.
- 딸들이 스스로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남녀차별과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는 호주제도를 폐지

하는 일에 앞장선다.

매월 한번씩 갖는 모임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자녀들을 다 시집 장가 보낸 후, 딸들을 좀 더 잘 키우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60대의 기업 대표, 전업주부임을 숨기지 않는 아버지, 아들 하나만 낳아 키우지만 아들을 잘 키워야 딸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며 참여하는 아버지, 딸아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했던 아픈 경험을 안고 참여한 아버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생후 10개월 된 딸아이를 둔 초보아빠, 아이와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풍선공작교실에 매주 참여한다는 아버지, 대구에서부터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왔다는 아버지....

6월 22일이면 모임을 결성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한해동안 딸사랑아버지모임에서 했으면 하는 몇가지 소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모임을 가져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딸사랑아버지모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길 소망해본다. 마음을 같이 하는 아버지 둘만 있으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딸사랑아버지모임에 참여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우리의 딸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박지현**